

국가철도공단

ESG채권관리체계

2023. 6.

경영본부
재무법무처

목 차

I . 국가철도공단 소개 및 ESG채권 개요	1
II . 관리체계 수립 목적	4
III . 발행채권의 분류 및 대상사업	4
IV . ESG채권 관리체계	5
V . 외부검토	7

1 기관 소개

국가철도공단(이하 “공단”)은 「국가철도공단법(이하 “공단법”）」에 의해 철도시설의 건설 및 관리, 그 밖에 이와 관련된 사업을 효율적으로 시행하여 국민 교통편의 증진과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해 2004.1월 설립되었습니다.

공단은 ‘빠르고 안전하고 쾌적한 철도로 국민과 함께 가겠다’는 사명 앞에 전국토를 촘촘하고 안전하게 이어주는 국가철도망을 구축하고, 친환경 철도로 탄소 중립을 실현하여 국민의 더 나은 삶을 지원하는 한편, 유라시아 연계 철도망의 기반을 마련하고, 철도산업 생태계 육성으로 공동체의 지속 발전에 기여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공단은 고속철도를 비롯한 국내의 모든 철도 건설과 해외 철도 사업 진출 및 동북아 철도망 구성 등 다양한 철도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21세기 교통혁명을 선도하고, 경영혁신 및 윤리경영을 통해 공공기관의 새로운 모범으로 자리매김 할 것입니다.

2 ESG경영을 위한 노력

가. KR ESG경영전략 수립

공단은 ESG경영 의지를 대내외에 선포함으로써 철도의 새로운 미래가치 창출을 위해 지난 2021.12월 ESG 경영전략을 수립하고 그 의지를 담아 공단의 ESG 비전 선포식을 개최하였습니다.

또한 공단은 ESG경영 패러다임 변화를 반영하여 지난 2022.9월 ESG 경영전략을 고도화하며, 환경·사회·지배구조 부문 전략방향을 새로이 도출하여 이행 중에 있습니다.

[ESG경영 전략체계]

비전	국민을 잇는 Rail, ESG로 여는 내일	
슬로건	레일로 E (이롭게) S (새롭게), G (가치있게)	
경영목표	KR-ESG 지수 S등급 달성	
전략방향	환경친화적 철도(E) / 모두가 누리는 철도(S) / 신뢰받는 철도(G)	
전략과제	환경	저탄소 철도기술·인프라 확대, 탄소저감형 철도자산 운용활성화, 생태보전형 철도건설, 자연친화 저변확대
	사회	이용편의 철도노선 확대, 예방중심 철도안전·정보보호 강화, 지속성장의 인적자원개발, 철도ESG정착의 포용사회 구현
	지배구조	투명한 기업문화 내실화, 소통중심 열린경영, ESG 지배구조 강화, ESG역량기반 경영시스템 고도화

나. 2050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추진전략 수립

우리 정부는 2050년까지 탄소중립을 국가비전으로 선언하고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강화하는 등 전 분야에서 탄소중립 사회로 도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수송분야는 「녹색교통의 활성화」를 감축 시책으로 정하고 철도를 국가기간교통망의 근간으로 명시(탄소중립기본법 제32조)하여 탄소 감축을 위한 철도의 역할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공단은 정부의 목표 달성에 기여하기 위해 지난 2022.7월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추진전략을 마련하여 ‘탄소 넷 제로로 가는 길, 철도!’라는 비전 아래 ‘2050 수송부문 탄소감축 목표의 20% 기여’라는 목표 달성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 ESG경영 추진을 위한 관련 거버넌스 체계 개선

공단은 적극적인 ESG경영추진 및 친환경 철도 인프라 구축 활동의 일환으로, 이사장을 위원장으로 하는 ‘탄소중립철도전략위원회’을 출범하였으며, 위원회 하부에 ‘미래정책’, ‘그린뉴딜’, ‘ESG’ 분과위원회를 신설한 바 있습니다.

라. 지속가능경영 보고서 발간

공단은 사회적 책임 실천 및 지속가능경영체계 구현 노력을 담아 2007년부터 지속가능경영보고서를 발간하였으며, 그 노력을 인정받아 2011년부터 2017년까지 7년 연속 「대한민국 지속가능성보고서상」을 수상한 바 있습니다.

3 ESG채권 개요

공단은 환경 및 사회적으로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공단의 ESG경영목표에 부합하도록 본 「ESG채권 관리체계」를 작성하였습니다. 또한, 공단은 ESG채권 발행과 더불어 다양한 활동전개를 통해 ESG경영을 선도해 나가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본 관리체계는 환경부와 금융위원회가 공동으로 마련한 「한국형 녹색채권 가이드라인(K-GBG)」, 환경부의 「한국형 녹색분류체계(K-Taxonomy) 가이드라인」, 국제자본시장협회(ICMA)의 녹색채권원칙(GBP), 사회적채권원칙(SBP) 및 지속가능채권가이드라인(SBG)에 부합되도록 설계되었습니다.

4 본 관리체계의 향후 적용

공단에서 발행하는 ESG채권에는 본 관리체계의 내용이 적용될 예정입니다.

II

관리체계 수립 목적

1

수립 목적

- 가. 친환경 철도 사업 및 사회적 가치 구현 사업에 대한 체계적인 자원조달 추진
나. 국제자본시장협회(ICMA)의 녹색채권원칙(GBP), 사회적채권원칙(SBP), 지속가능채권가이드라인(SBG) 부합
다. 환경부의 「한국형 녹색분류체계(K-Taxonomy) 가이드라인」 및 환경부와 금융위원회가 공동으로 마련한 「한국형 녹색채권 가이드라인(K-GBG)」 부합

2

본 관리체계의 핵심요소

본 관리체계는 상기한 원칙 및 분류체계에 부합하도록 다음의 4가지 핵심요소에 맞춰 자금이 집행·관리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가. 자금의 용도
나. 프로젝트 평가 및 선정 절차
다. 자금의 관리
라. 사후보고

III

발행 채권의 분류 및 대상 사업

가. 녹색채권(Green Bond) : 환경 분야에 대한 사업 자금 조달을 위해 발행

한국형 녹색분류체계	ICMA GBP	설명
(수송) 무공해 운송 인프라 구축운영	Clean transportation	저탄소 육상인프라(전기철도시설 등)를 구축·운영하는 활동

나. 사회적채권(Social Bond) : 사회적 분야에 대한 사업 자금 조달을 위해 발행

ICMA SBP	설명
Affordable basic infrastructure	· 적정 가격의 기본 인프라 설비 구축(수송, 에너지 등)
Socioeconomic advancement and empowerment	· 사회경제적 발전과 역량강화를 꾀하며, 자산·서비스·자원 및 기회에 대한 공평한 접근과 통제 등

다. 지속가능채권(Sustainable Bond)은 환경 및 사회적 분야에 대한 사업 자금 조달을 위해 발행

IV

ESG채권 관리체계

1 자금의 용도

가. 공단이 ESG채권 발행으로 조달하는 자금은 각 채권의 용도에 맞게 아래의 사업에 투입(최근 3개년 이내 진행된 사업 포함)

구 분	한국형 분류체계		ICMA 분류	공단 대상 사업
	분야	경제활동		
녹 색	수송 [녹색부문]	무공해 운송 인프라 구축운영	청정 수송	· 고속철도 건설사업
사 회	-		기본 인프라 설비 구축	· 철도 건설사업 · 철도 유지보수·개량 · 해외 인프라 개발
	-		사회경제적 발전과 역량강화	· 역세권 등 자산개발

나. 특히, 원화 녹색채권을 통해 조달되는 자금은 한국형 녹색분류체계에 적합한 사업 및 해당 사업 투자분의 차환(3개년 이내)에 사용

2 프로젝트 평가 및 선정절차

공단의 자금조달 주관부서인 재무법무처는 ESG관리체계에 부합하는 사업 선정 및 채권발행을 위해 아래와 같은 절차를 이행합니다.

가. 대상사업 후보군 및 자금소요 분석(재무법무처)

나. ESG 총괄부서(기획조정실)와 적격성 확인 등 협의

다. 녹색채권의 경우 탄소중립 주관부서(미래전략연구원)와 협의

- 원화 녹색채권 지원대상 프로젝트 선정 시, 환경개선 목표와 한국형 녹색분류 체계에 부합하는 프로젝트 선별하며 프로젝트의 잠재적인 환경·사회적 영향을 검토하고, 관리체계와 경제활동별 활동기준, 인정기준, 배제기준 및 보호기준을 명확히 적용하는 과정을 거쳐 대상 사업을 선정

라. 자금조달 주관부서(재무법무처)에서 대상사업 최종 선정



3 자금의 관리

가. ESG채권의 발행대금은 전액 본 관리체계에 부합하는 사업의 자금조달 및 차환을 위한 목적으로 배분

나. 배분된 자금은 내부 ERP, ESG채권발행관리대장 및 별도계좌 운영을 통해 추적 및 관리

[ESG채권발행관리대장(예시)]

발행회차 (식별번호)	발행일	만기일	발행 금액	이율	사업명	용도	배분 및 집행금액			미 배분액
							...	3분기	4분기	
국철공(녹)-1	2023-06-20	2025-06-20	300	0.00	호남1	차환	0	198	0	0
					수도권	차환	0	102	0	0
국철공(사)-1	2024-02-02	2027-02-02	100	0.00	역세권	신규	0	100	0	0
...

다. 미 사용된 발행대금은 적절한 사업에 사용이 완료될 때 까지 내부 자금관리 기준에 의거 현금 또는 현금성 자산으로 운용

라. 대상사업에 대한 실제 자금배분 금액이 ESG채권 조달자금과 일치하는지와 당초 계획과 달리 미사용 자금이 발생하는지 등에 대해 지속적으로 확인 및 관리

4 사후보고

공단은 아래의 내용이 포함된 ‘투자자 안내문’을 ESG채권의 발행대금이 전액 소진될 때까지 매년마다 공단 홈페이지와 한국거래소에 공시할 예정입니다.

가. 채권발행 내역

나. 발행자금 배분 및 집행 현황 (Allocation)

다. 사업 시행에 따른 환경 및 사회적 영향 (Impact)

- 환경부·금융위 「한국형 녹색채권 가이드라인(K-GBG)」의 환경개선 효과 측정지표 예시 및 환경부 「한국형 녹색분류체계(K-Taxonomy) 가이드라인」의 녹색경제 활동별 인정기준 지표 등을 감안하여 산출

< 환경 개선 기여도 측정 지표*(예시) >

한국형 분류체계	ICMA 분류	공단 대상 사업	지표
무공해 운송 인프라 구축운영**	청정 수송	· 고속철도 건설사업	· 연간 온실가스 배출 감소량 (CO ₂ 톤/1년) · 고속철도 배치연장(km)

* 실제 기여도 측정 시 지표 추가, 변경될 수 있음

** 당 경제활동은 분류체계 상 인정기준을 미 적용하나, 필요 시 온실가스 감축량 등을 산출할 예정

공단은 당초 계획과 달리 자금배분이 미완료 되는 경우, 관리체계 주요 사항의 개정 등 중요한 변동사항이 있는 경우 사후(연례) 보고서를 작성하여 공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공단은 한국형 녹색채권 발행 후 자금배분 완료시점 또는 채권 만기일까지 자금 배분 사항, 환경영향 및 한국형 녹색분류체계 적합 여부 등을 포함한 사후(최종) 보고서를 작성하여 사후 외부검토를 받고 공단 홈페이지 및 사회책임투자채권 전용 세그먼트에 공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라. ESG관리체계 개정에 관한 사항

- 추후 ‘한국형 사회적채권 가이드라인’ 신설 또는 환경부·금융위의 ‘한국형 녹색채권 가이드라인(K-GBG)’의 주요한 개정이 있을 경우 제·개정 내용에 따라 본 관리체계 또한 개정될 수 있으며, 관리체계 변경 시 외부 전문기관으로부터 재검토를 받을 예정입니다.

V 외부 검토

공단은 ‘ESG채권 발행’ 및 ‘사후(최종) 보고’ 이전에 외부 평가기관을 통해 인증평가를 수행합니다. 평가기관은 ESG채권 평가방법론을 보유한 기관 중 자금조달 주관부서가 선정합니다.

본 관리체계와 외부전문기관의 인증평가 결과(검토보고서)는 공단의 홈페이지와 한국거래소에 공시할 예정입니다.